

---

# 주요국 예산안 – 미국

[FY2024 대통령 예산안]

---

2023. 3.

## 연구책임자

오종현 재정지출분석센터장

배진수 재정제도분석팀장

## 담당연구원

구윤모 선임연구원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목 차

1. 경제 및 재정 전망 .....	1
가. 경제 전망 .....	1
나. 재정 전망 .....	3
2. 예산목표 .....	5
3. 예산안 내용 .....	6
가. 세입 .....	6
나. 세출 .....	8
4. 주요 재정정책 .....	17
가. 가계비용 절감 .....	17
나. 메디케어/사회보장제도 보호 및 강화 .....	18
다. 저소득층은 끌어올리고, 중산층은 키우는 경제 .....	18
라. 기후변화 대응 .....	19
마. 국제위협 대응 및 미국 안전 .....	20
바. 재정 건전화 .....	21

## 미국 개황

□ FY2024 : 2023년 10월 ~ 2024년 9월

□ 출처 :

○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Fiscal Year 2024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23.3.9.

○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Fiscal Year 2024 Budget of the U.S. Government - Analytical Perspectives, 202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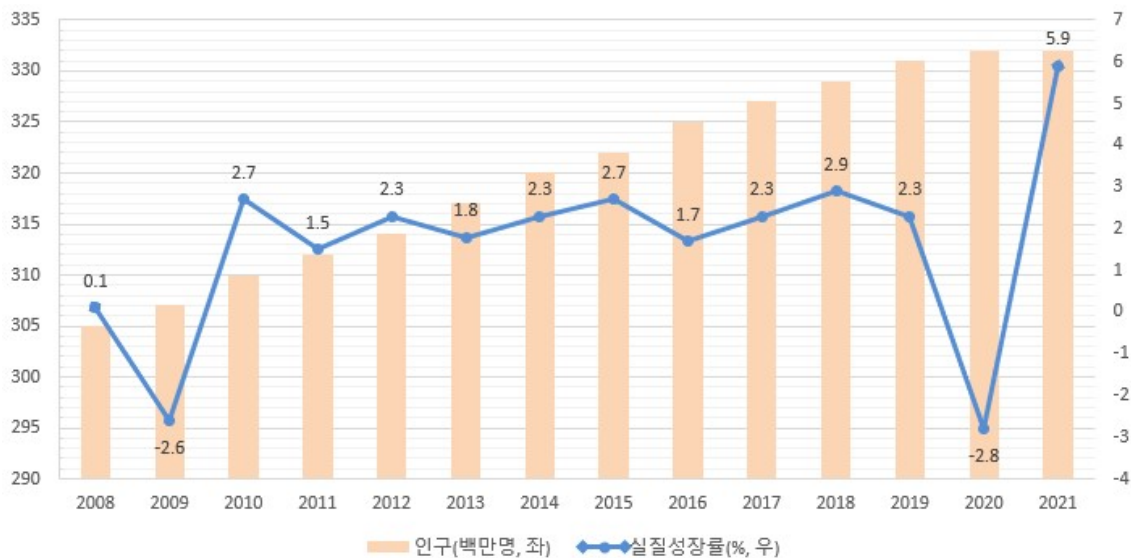
□ 환율 : 1USD = 약 1,292.16원 (2022년도 평균, 매매기준율)

□ 경제규모 : 2021년 경상GDP 23조 3,151억 달러 (우리나라의 약 9.6배 수준<sup>1)2)</sup>)

□ GDP 대비 수출입 비율(명목) : 2021년 기준 25.5% (우리나라는 80.5%)

□ 인구 : 3억 3,221만명 (2021년 기준)

□ GDP 성장률 및 인구 추이 :



자료: OECD, National Accounts - GDP, Population and employment by main activity, 검색일자: 2023.3.10.

1) 구매력 평가지수(PPP)를 반영한 수치이며, 우리나라 규모는 추정치, 미국은 실적치 기준.

2) 일반적인 명목(current prices, current exchange rates) 기준으로 할 경우, 미국 경제규모는 우리나라(1조 8,110억달러)의 12.9배

<최근 재정 및 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22.7.1.	CBO, 2023회계연도 대통령 예산안에서 제시한 재량지출 전망 분석 보고서 발표	2022년 하반기 재정동향
2022.7.13.	노동부 노동통계국(BLS), 2022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2022.7.13.	연방준비제도(Fed), 베이지북 발표	
2022.7.20.	의회 하원, 2023회계연도 minibus(부분세출예산) 법안(H.R.8294) 가결	
2022.7.27.	CBO, 2022 장기재정 전망 보고서 발표	
2022.7.27.	연방준비제도(Fed), 기준 금리 인상 및 경제 전망 공개	
2022.8.9.	반도체 지원 법안(CHIPS and Science Act; H.R.4346), 대통령의 법안 서명 후 입법 발효	
2022.8.10.	노동부 노동통계국(BLS), 2022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2022.8.12.	의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 H.R. 5376) 가결	
2022.8.23.	OMB, 대통령 예산안 수정전망(MSR) 발표	
2022.8.25.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2022년 2분기 GDP(속보, 수정치) 발표	
2022.9.7.	연방준비제도(Fed), 베이지북 발표	
2022.9.13.	CBO, 2023회계연도 대통령 예산안 분석 보고서 발표	
2022.9.21.	연방준비제도(Fed), 기준 금리 인상 및 경제 전망 공개	
2022.9.24.	바이든 대통령, 학자금 대출 완화 정책 발표	
2022.9.30.	2023회계연도 1차 임시 예산안(H.R. 6833) 입법 발효	
2022.9.30.	의회, 분유 대란 대응을 위한 관세 조정 법안(H.R. 8982) 가결	
2022.10.11.	CBO, 2022회계연도 잠정 결산 발표	
2022.10.19.	연방준비제도(Fed), 베이지북 발표	

2022.10.27.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2022년 3분기 GDP(속보치) 발표	
2022.11.2.	연방준비제도(Fed), 기준 금리 인상 및 경제 전망 공개	
2022.11.30.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2022년 3분기 GDP(1차 수정치) 발표	
2022.11.30.	연방준비제도(Fed), 베이지북 발표	
2022.12.7.	CBO, 2022 예산대안(Budget Options) 보고서 발표	
2022.12.14.	연방준비제도(Fed), 기준 금리 인상 및 경제 전망 공개	
2022.12.16.	2023회계연도 2차 임시 세출예산안(H.R. 1437) 입법 발효	
2022.12.22.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2022년 3분기 GDP(2차 수정치) 발표	
2022.12.23.	2023회계연도 3차 임시 예산안(H.R. 4373) 입법 발효	
2022.12.23.	의회, 2023회계연도 정규세출예산 최종 합의 도달	
2022.12.16.	CBO, 2022 공적연금 장기재정전망 발표	2023년 상반기 재정동향
2023.1.13.	재무부 장관, 국가채무 상한선 도달에 대한 디폴트 우려 및 의회에 대책 촉구	
2023.1.18.	연방준비제도, 베이지북 발표	
2023.1.26.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2022년 4분기 GDP(속보) 발표	
2023.1.	OMB, 2022 페이고(PAYGO) 최종 보고서 발표	
2023.1.30.	백악관, 보건 관련 장소에서의 백신 의무화 철회 법안(H.R. 497)에 대한 반대 의견서 발표	
2023.1.31.	의회 하원, 팬데믹 종료 법안(H.R. 382) 가결	
2023.2.15.	CBO, 2023~2033 예산·경제 전망 보고서 발표	

<요 약>

□ 경제 및 재정 전망

- (경제 전망) 2023년 경제성장률은 향후 10년 전망 기간 동안 가장 낮은 0.6%에 머물고, 2024년은 1.5%를 기록할 전망
- (재정 전망) 2024회계연도 재정적자 규모는 전년(1조 5,690억달러) 대비 17.7% 증가한 1조 8,460억달러(GDP 대비 6.8%)로 전망
- (국가채무) 2024회계연도 연방정부 채무(debt held by the public)는 전년(25조 9,100억달러) 대비 7.2% 증가한 27조 7,830억달러로 전망

□ 예산안 내용

- (수입) 2024회계연도 재정수입은 전년(4조 8,020억달러) 대비 4.9%(2,340억달러) 증가한 5조 360억달러(GDP 대비 18.5%)로 전망
- (지출) 2024회계연도 재정지출은 전년(6조 3,720억달러) 대비 8.0%(5,110억달러) 증가한 6조 8,830억달러(GDP 대비 25.3%)로 계획

□ 주요 재정정책

- ① 가계비용 절감(Lowering costs and Giving Families More Breathing Room)
- ② 메디케어 및 사회보장제도 보호(protecting) 및 강화(strengthening)
- ③ 저소득층은 끌어올리고, 중산층은 키우는(bottom up and middle out) 경제
- ④ 기후변화 대응
- ⑤ 국제위협 대응 및 미국 안전
- ⑥ 재정건전화 등

# 1. 경제 및 재정 전망

## 가. 경제 전망<sup>3)</sup>

- (경제성장률) 2023년 경제성장률은 향후 10년 전망 기간 동안 가장 낮은 0.6%(전년 추정치인 1.8% 대비 1.2%p 감소)에 머물고, 2024년에는 1.5%로 반등하며, 2025년 이후에는 2% 초반대를 유지할 전망
  - 정부는 2023년 경제성장률을 CBO<sup>4)</sup>에 비해 0.3%p 정도 낙관적으로 전망
  - 2022년 명목GDP는 25조 4,090억달러를 기록하고, 2027년에는 30조달러를 넘어설 전망

<표 1>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 비교

(단위: %)

경제 전망	실적						구분	전망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	2032
실질 GDP <sup>1)</sup>	1.5	2.2	2.9	2.2	-3.4	5.9	정부	1.8	0.6	1.5	2.3	...	2.2
							CBO <sup>2)</sup>	2.1	0.3	1.8	2.7	...	n/a

주: 1) 전년 대비 변화율

2) CBO의 2022년 수치는 실적치이며, 2023년부터는 전망치

자료: OMB, "Fiscal Year 2024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23.3.9., Table S-9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3 to 2033," 2023.2.15., Table 1-1, 2-1

- (노동시장) 2023년 실업률은 4.3%로 전년 대비 0.6%p 상승하고, 2024년에는 4.6%로 고점에 이른 후 2025년부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일 전망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에 8.1%까지 상승했던 실업률은 2022년까지 하락세를 보였으나, 2023년에 반등한 이후 2024년에도 상승 국면 유지
- (물가) 2021년에 4.7%를 기록한 물가지수(CPI-U)는 2022년에 8.1%까지 상승하였고, 2023년에는 4.3%, 장기적으로는 2.3% 수준으로 전망

3) 경제전망에서의 연도는 다른 언급이 없는 한 회계연도가 아닌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를 의미

4) 미국 주요 경제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평균화한 수치

- (소비) 미국 경제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질 개인소비지출(PCE)은 2022년 4분기에 1.8% 증가

<표 2> 미국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십억달러, %)

경제 전망	실적			전망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	2033
명목 GDP	21,433	20,894	23,315	25,409	26,544	27,523	28,750	29,981	....	40,157
실질 GDP 성장률 (2024 예산안 전망치)	2.2	-3.4	5.9	1.8	0.6	1.5	2.3	2.1	....	2.2
실질 GDP 성장률 (2023 예산안 전망치)				5.5	4.2	2.8	2.2	2.0	....	2.3
실업률 <sup>1)</sup>	3.7	8.1	5.4	3.7	4.3	4.6	4.4	4.3	....	3.8
CPI-U <sup>2)</sup>	1.8	1.2	4.7	8.1	4.3	2.4	2.3	2.3	....	2.3
국채 91일 <sup>3)</sup>	2.1	0.4	*	2.0	4.9	3.8	3.0	2.5	....	2.5
국채 10년물 <sup>1)</sup>	2.1	0.9	1.4	3.0	3.9	3.6	3.5	3.4	....	3.5

주: \* = 0.05% 또는 이하

주: 1) 연평균

2) 계절 조정(도시 소비자 대상)

3) 평균 수익률, 유통시장(은행 할인 기준)

출처: OMB, "Fiscal Year 2024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23.3.9., Table S-9

## 나. 재정 전망<sup>5)</sup>

- (재정수입) 2024회계연도 재정수입은 전년(4조 8,020억달러) 대비 4.9% 증가한 5조 360억달러(GDP 대비 18.5%)로 전망
- (재정지출) 2024회계연도 재정지출은 전년(6조 3,720억달러) 대비 8.0% 증가한 6조 8,830억달러(GDP 대비 25.3%)로 계획
- (재정수지) 2024회계연도 재정적자 규모는 전년(1조 5,690억달러) 대비 17.7% 증가한 1조 8,460억달러(GDP 대비 6.8%)로 전망
  - 2023회계연도 재정적자는 전년도 발표된 대통령 예산안의 전망 수치(1조 1,540억달러) 대비 약 36.0% 상승한 1조 5,690억달러로 전망
    - 향후 10년간(~2033회계연도) 재정적자 추이는 2025회계연도를 기점으로 GDP 대비 5% 후반대로 하락한 이후 4% 후반대 ~ 5% 초반대를 유지할 전망
- (국가채무<sup>6)</sup>) 2024회계연도 연방채무(debt held by the public)는 전년(25조 9,100억달러) 대비 7.2% 증가한 27조 7,830억달러로 전망 (GDP 대비 수치도 증가)
  - \* 2024회계연도 연방 총 채무<sup>7)</sup>(34조 8,080억달러: GDP대비 127.8%)중 정부 내부 거래를 의미하는 정부부문 소유채무는 7조 250억달러(GDP대비 25.8%) 전망
  - 2023회계연도 GDP 대비 연방채무는 전년(97.0%) 대비 1.4%p 증가한 98.4% 전망
    - GDP 대비 연방채무는 향후 전망기간(~2033회계연도) 동안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망기간 마지막 연도인 2033회계연도에는 109.8%를 기록할 전망
  - 2024회계연도 예산안 정책을 바탕으로 연방채무는 2033년에 기준선(OMB baseline) 대비 7%p 하락한 110%를 기록할 전망[그림 1]

5) 2024회계연도 기간은 2023.10~2024.9이며, 2024회계연도 전망 시 비교하는 전년도의 규모는 추정치이며, 예산 기본문서의 <Table S-4 - Proposed Budget by Category>의 수치를 기준으로 함

6) 정부 내부거래 제외를 기준으로 작성; 정부 내부 거래(debt held by Government accounts)를 제외한 연방 정부 채무 수치는 미국 채무의 주요지표로 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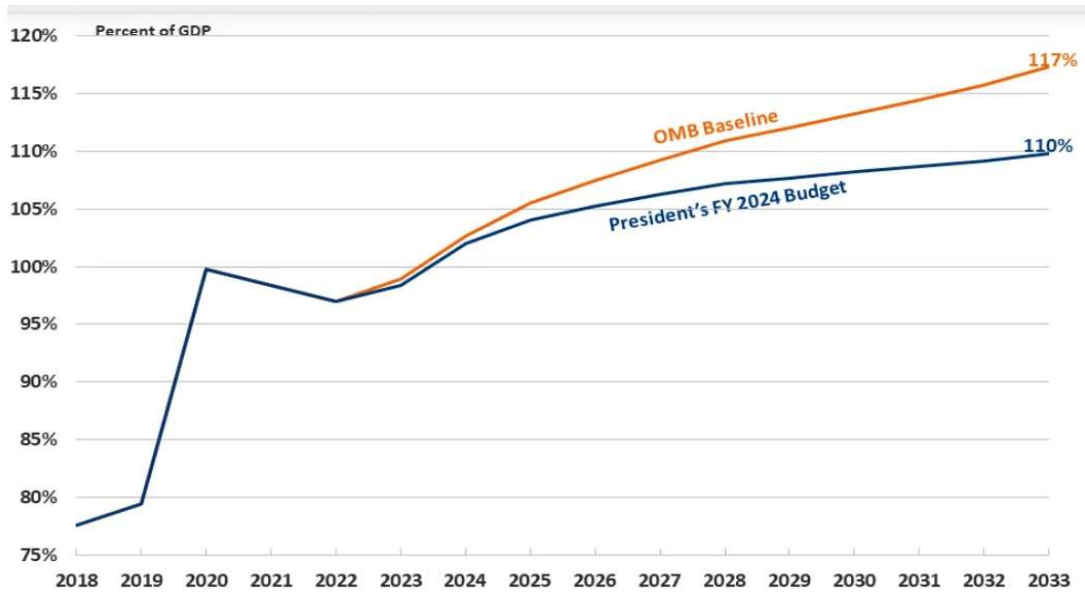
7) 연방총채무(Gross Federal Debt) = 비정부부문소유채무(Debt held by the public; 정부내부거래를 제외한 채무) + 정부부문소유채무(Debt held by the Government accounts, 정부내부거래만 포함한 채무)

<표 3> 미국 재정전망

재정 전망	실적					추정	전망					
	2008	200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	2033	2024~2033
<b>예산총량 (십억달러)</b>												
수입	2,524	2,105	3,421	4,047	4,897	4,802	5,036	5,419	5,773	...	7,991	58,264
지출	2,983	3,518	6,550	6,822	6,273	6,372	6,883	7,091	7,294	...	10,026	82,242
재정적자	459	1,414	3,129	2,775	1,376	1,569	1,846	1,671	1,521	...	2,035	17,054
연 방 (공 공) 채무 <sup>1)</sup>	5,803	7,544	21,017	22,284	24,252	25,910	27,783	29,592	31,233	...	43,619	-
경제규모(GDP)	14,441	14,119	21,000	22,358	25,000	26,336	27,238	28,432	29,679	...	39,732	-
<b>예산총량 (GDP대비 %)</b>												
수입	17.7	14.8	16.3	18.1	19.6	18.2	18.5	19.1	19.5	...	20.1	19.6
지출	21.0	24.7	31.2	30.5	25.1	24.2	25.3	24.9	24.6	...	25.2	24.8
재정적자	3.2	9.9	14.9	12.4	5.5	6.0	6.8	5.9	5.1	...	5.1	5.2
연 방 (공 공) 채무 <sup>1)</sup>	40.8	53.0	100.1	99.7	97.0	98.4	102.0	104.1	105.2	...	109.8	-

주: 1) 정부 내부거래 제외  
출처: OMB, "Fiscal Year 2024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23.3.9., Table S-1

[그림 1] 2024회계연도 예산정책으로 인한 채무 전망



출처: OMB, Fiscal Year 2024 Budget of the U.S. Government, Analytical Perspectives, 2023.3.9., Chart 3-2  
CRFB, An Overview of the president's FY2024 Budget, 2023.3.9.

## 2. 예산 목표8)

### ◇ 가계비용 절감

- 자녀가 있는 가구의 세금 감면 및 가계비용 절감
- 적정가격 및 양질의 보건 서비스 확대
- 적정가격 주택 공급 확대
- 고등교육 지원
- 근로자 유급 의료휴가 및 가족휴가 지원

### ◇ 메디케어/사회보장제도 보호 및 강화

- 수혜금 지불 능력 강화

### ◇ 저소득층은 끌어올리고, 중산층은 키우는 경제

- 미국 제조업 투자
- 근로자 유급 의료휴가 및 가족휴가 지원
- 빈곤학교 지원

### ◇ 기후변화 대응

- 에너지 비용 감축 및 청정에너지 인프라 일자리 창출
- 지구 온난화 감축 기후변화 복원력(resilience) 강화
- 기후변화 복원력(resilience) 강화

### ◇ 국제위협 대응 및 미국 안전

- 국내 범죄 예방
- 젠더 폭력 종식
- 우크라이나, 유럽 동맹국 등 지원
- 중국 대응 및 인도-태평양 지역 억지(deterrence) 전략
- 국경 및 이민 체계 안전 강화 등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정책 전환

### ◇ 재정 건전화

- 고소득층 최저세율 도입
- 법인세율 인상
- 자사주 매입 세금 확대
-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정책 전환

8) 미 백악관, “FACT SHEET: The President’s Budget for Fiscal Year 2024,” 2023.3.9.  
<https://www.whitehouse.gov/omb/briefing-room/2023/03/09/fact-sheet-the-presidents-budget-for-fiscal-year-2024/>, 검색일자: 202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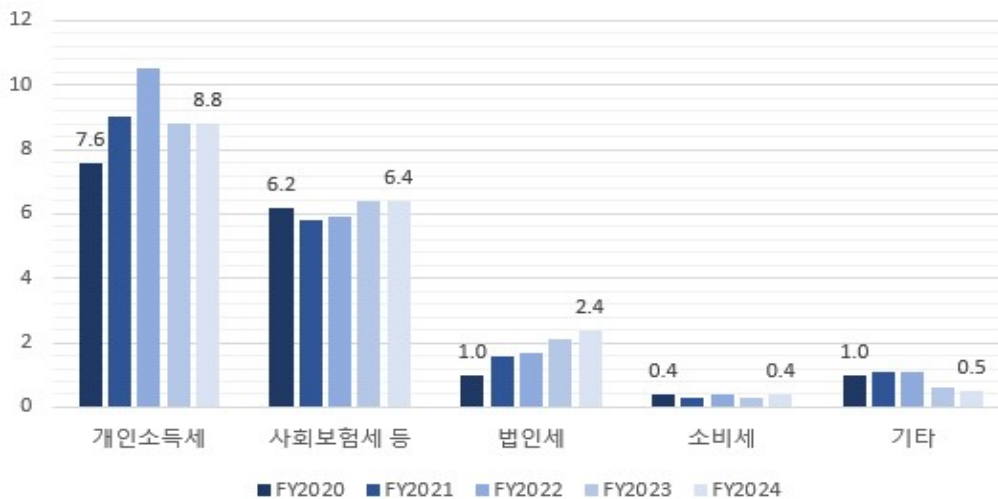
### 3. 예산안 내용<sup>9)</sup>

#### 가. 세입

- 2024회계연도 재정수입은 전년(4조 8,020억달러) 대비 4.9% 증가한 5조 360억달러 (GDP 대비 18.5%)로 전망
  - 2023회계연도 재정수입은 전년 실적치 대비 약 2.0% 감소한 4조 8,020억달러(GDP 대비 18.2%)로 추정
  - GDP 대비 재정수입은 2025회계연도에 3년만에 19%를 넘어서며, 이후 2026회계연도부터 19%대를 유지하다가 2032회계연도에 20%에 도달할 전망
- 2024회계연도 주요 수입 항목의 GDP 비중 순위는 개인소득세(8.8%), 사회보험세 등 (6.4%), 법인세(2.4%), 관세(0.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수입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소득세의 GDP 대비 비중은 2023~2024회계연도에 8.8% 수준을 유지할 전망

[그림 2] 미국 주요 세입 항목의 GDP 대비 비중 추이

(단위: GDP 대비 %)



주: FY202~FY2022: 실적치 / FY2023: 추정치 / FY2024: 전망치  
출처: OMB, "Fiscal Year 2024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23.3.9., Table S-5

9) 2024회계연도 기간은 2023.10~2024.9이며, FY2024 전망에서 비교하는 전년도(FY2023) 규모는 추정치

<표 4> 미국 분야별 주요 세입전망

(단위: 회계연도, 십억달러)

	실적			추정	전망						GDP 대비 평균 비중 '24~'33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	
개인소득세	1,609	2,044	2,632	2,328	2,390	2,617	2,849	3,029	...	4,154	9.9
법인세	212	372	425	546	666	733	734	740	...	803	2.3
사회보험 및 퇴직연금 수입 <sup>1)</sup>	1,310	1,314	1,483	1,675	1,741	1,820	1,909	1,990	...	2,238	-
소비세	87	75	88	91	114	114	119	121	...	141	0.4
유산세, 증여세	18	27	33	21	25	28	29	45	...	68	0.1
관세	69	80	100	102	61	50	52	54	...	57	0.2
연방 준비제도 예치 이익금 <sup>2)</sup>	82	100	107	n/a	n/a	14	36	54	...	91	0.2
기타 수입	36	34	30	39	38	42	45	46	...	63	0.2
<b>총 재정수입</b>	<b>3,421</b>	<b>4,047</b>	<b>4,897</b>	<b>4,802</b>	<b>5,036</b>	<b>5,419</b>	<b>5,773</b>	<b>6,080</b>	...	<b>7,991</b>	19.6
<b>GDP대비 %</b>	<b>16.3</b>	<b>18.1</b>	<b>19.6</b>	<b>18.2</b>	<b>18.5</b>	<b>19.1</b>	<b>19.5</b>	<b>19.7</b>	...	<b>20.1</b>	

주: 1) 사회보장급여세, 메디케어급여세, 실업보험, 기타 퇴직 등으로 구성

2) Deposits of earnings, Federal Reserve System

자료: OMB, "Fiscal Year 2024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23.3.9., Table S-5

## 나. 세출<sup>10)</sup>

- 2024회계연도 재정지출은 전년(6조 3,720억달러) 대비 약 8.0%(5,110억달러) 증가한 6조 8,830억달러(GDP 대비 25.3%)로 계획
  - 올해(FY2023) 재정지출 규모는 6조 3,720억달러로 GDP 대비 24.2% 추정
- 2024회계연도의 예산 기능별(총 20개 기능) 지출 중 가장 큰 규모를 보이는 항목은 사회보장지출, 소득보장(income security), 국방, 보건(의료), 메디케어, 순이자 순으로 나타남
  - 전년 대비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는 항목은 에너지, 교통, 천연자원 및 환경, 소득보장, 순이자 순으로 집계
-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모두 포함한 2024회계연도의 기능별 주요 지출(outlays by function)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임<sup>11)</sup>
  - (사회보장<sup>12)</sup>) 전년 대비 8.4% 증가한 1조 4,658억달러로 총지출 대비 비중은 21.3% 전망
    - 2023회계연도 사회보장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11.0%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1.3조달러를 웃돌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5년(~2028회계연도)간 연평균 증가율은 6.5%를 기록할 전망
  - (소득보장 지원, income security) 전년 대비 23.3% 증가한 9,764억달러, 총 지출 대비 비중은 14.2% 전망
    - 소득보장 지원 분야의 하위기능(총 6개) 중 4개 기능(①일반<sup>13)</sup> 및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지원<sup>14)</sup>, ②실업수당 ③주거지원(housing Assistance), ④기타 소득 보장 지출) 모두 증가
  - (국방) 전년 대비 11.6% 증가한 약 9,094억달러로 총지출 대비 비중은 13.2% 전망

10)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전년도 규모는 추정치 규모를 의미하며, 기능별 지출은 예산권한(budget authority)이 아닌 지출(outlays) 기준임

11) OMB, Fiscal Year 2024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23.3.9., Historical Tables - Table 3.2

12) 「사회보장법」에 의해 창설된 미국의 대표적 공적연금제도로써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와 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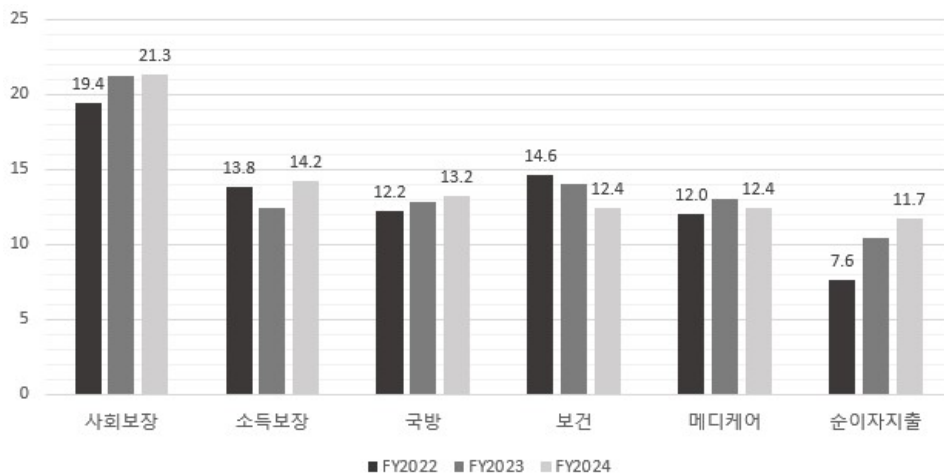
13) general retirement and disability insurance(excluding social security)

14) federal employee retirement and disability

- 2016회계연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인 국방 지출은 2028회계연도(전망기간 마지막 연도)까지 증가세를 지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보건) 전년 대비 4.3% 감소한 8,527억달러로 총지출 대비 비중은 12.4% 전망
  - 하위 기능 중 보건관련 연구·교육 지출을 제외한 의료 서비스(health care services), 소비자 및 직장 내 보건·안전(consumer and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지출 모두 감소
- (메디케어<sup>15)</sup>) 전년 대비 2.5% 증가한 8,504억달러로 총 지출대비 비중은 12.4% 전망
  - 메디케어 항목 지출은 2024회계연도 총 재정지출 증가율(8.0%) 대비 저조한 2.5% 증가율을 기록하나 이후 연도부터는 2028회계연도까지 연평균 9%에 근접한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2026회계연도에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 (순이자 지출) 전년 대비 19.4% 증가한 약 7,888억달러로 총 지출 대비 비중은 11.5% 전망
  - 올해와 내년도의 순이자 지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안에서 전망한 수치 대비 크게 상승하였으며 이후 후속년도에도 지속적인 증가세 전망

[그림 3] 미국 총지출 대비 주요 기능별 지출 비중 추이

(단위: %)



주: FY2022: 실적치 / FY2023: 추정치 / FY2024: 전망치  
출처: OMB, "Fiscal Year 2024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23.3.9, Historical Tables - Table 3.2

15) 메디케어: 65세 이상 노인 대상 의료보장제도 / 메디케이드: 65세 미만 저소득자 및 신체장애인 대상 의료 지원 제도

<표 5> 미국 기능별 지출(Outlays) 규모 추이 및 전망

(단위: 백만달러, %)

Outlays By Function	실적				추정	전망	증감
	2019	2020	2021	2022	2023 (a)	2024 (b)	증가율 (b-a)/a
국방	686,003	724,645	753,901	765,823	814,750	909,377	11.6
국제관계	52,739	67,666	46,947	71,699	79,883	73,735	-7.7
과학/우주/기술	32,410	34,004	35,512	37,404	43,052	44,602	3.6
에너지	5,041	7,083	5,977	-9,132	10,655	30,456	185.8
천연자원, 환경	37,844	42,450	44,160	41,389	69,400	93,175	34.3
농업	38,257	47,298	47,398	33,065	41,414	33,147	-20.0
상업/주택융자 (housing credit)	-25,715	572,071	307,847	-19,075	-1,131	21,853	-
교통	95,756	145,623	154,291	131,084	136,507	147,140	77.9
지역사회/지방발전	26,784	81,878	44,655	69,963	100,474	71,506	-28.9
교육/훈련/고용/사회서비스	136,700	237,754	298,406	677,305	269,046	218,552	-18.8
보건(의료)	584,816	747,582	796,450	914,081	891,397	852,655	-4.3
메디케어	650,996	776,225	696,458	755,094	829,902	850,446	2.5
소득보장	514,787	1,263,639	1,647,730	866,097	792,089	976,437	23.3
사회보장	1,044,409	1,095,816	1,134,586	1,218,663	1,352,268	1,465,820	8.4
재향군인	199,843	218,655	234,282	277,404	304,963	320,970	5.2
법무행정	65,832	71,997	71,430	71,323	86,259	88,338	2.4
일반정부	23,488	180,109	273,941	133,214	42,505	44,353	4.3
순이자	375,158	345,470	352,338	475,887	660,647	788,772	19.4
할당금 (Allowances)	-	-	-	-	-17,770	16,430	-
기타 (상계수입 포함)	-98,192	-106,362	-123,860	-234,964	-134,383	-165,026	-
<b>재정지출 (GDP 대비 비율)</b>	<b>4,446,956 (21.0)</b>	<b>6,553,603 (31.2)</b>	<b>6,822,449 (30.5)</b>	<b>6,273,324 (25.1)</b>	<b>6,371,827 (24.2)</b>	<b>6,882,738 (25.3)</b>	<b>8.0</b>

출처: OMB, "Fiscal Year 2024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23.3.9., Historical Tables - Table 3.2

□ 미국 재정의 항목(category)별 지출은 ①재량지출\*, ②법정(의무)지출, ③순이자 지출로 구분되며, 주요 항목별 지출 전망은 아래와 같음

\* 재량지출은 다시 국방분야와 비국방분야 지출 등으로 나누어짐

- (재량지출<sup>16</sup>) 2024회계연도 총 재량지출 예산권한<sup>17</sup>(budget authority)은 전년 대비 4.8% 증가한 1조 6,955억달러(GDP 대비 7.0%) 계획 <표7>
  - 2024회계연도 국방(defense)분야 예산권한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8,864억달러 계획
  - 2024회계연도 비국방(non-defense)분야 예산권한은 전년 대비 7.3% 증가한 6,881억달러 계획
  - 기타(재향군인 의료 프로그램) 분야의 2024회계연도 예산권한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1,210억달러 계획
- (의무지출) 2024회계연도 의무지출(순이자지출\* 7,890억달러 제외)은 전년 대비 5.5% 증가한 4조 1,940억달러(GDP 대비 15.4%) 전망 <표 6>
- (순이자 지출) 향후 약 10년 동안 지속적인 증가 전망(향후 10년 연평균 증가율: 7.2%)

\* 순이자지출 추이: (2022) 4,760억달러(실적) → (2023) 6,610억달러(추정) → (2024) 7,890억달러(전망)

□ (지출별 비중)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순이자지출 포함)의 총지출대비 비중은 2023 회계연도에는 27:73 수준이며, 향후 10년 뒤인 2033회계연도에는 21:79 수준으로 의무지출 비중이 크게 확대될 전망

<참고> 총 지출 대비 재량지출/의무지출/순이자지출 비중

연도	재량지출	의무지출	순이자지출	합계
2023회계연도 (올해)	27.2%	62.4%	10.4%	100%
2033회계연도 (10년 뒤)	20.7%	66.1%	13.2%	100%

출처: OMB, "Fiscal Year 2024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23.3.9., Table S-4를 재구성

16) Base Discretionary Funding 수치 (Table S-8; 2024 Discretionary Request by Major Agency - Continued)

17) base funding 기준 - 예산권한(budget authority)이 아닌 지출(outlays) 기준의 수치는 <표 6> 참고

<표 6> 항목(Category)별 지출(outlays) 전망

(단위: 십억달러)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	2031	2032	2033	2024~ 2033
<b>재량지출 프로그램</b>												
국방	752	800	885	906	907	921	941	..	970	978	984	9,408
비국방	912	936	1,015	1,010	1,029	1,034	1,024	..	1,055	1,075	1,095	10,410
<b>소계:</b> (GDP 대비 %)	<b>1,664</b> <b>(6.7)</b>	<b>1,736</b> <b>(6.6)</b>	<b>1,900</b> <b>(7.0)</b>	<b>1,916</b> <b>(6.7)</b>	<b>1,936</b> <b>(6.5)</b>	<b>1,955</b> <b>(6.3)</b>	<b>1,964</b> <b>(6.1)</b>	..	<b>2,026</b> <b>(5.6)</b>	<b>2,052</b> <b>(5.4)</b>	<b>2,079</b> <b>(5.2)</b>	<b>19,818</b> <b>(6.0)</b>
<b>법정(의무)지출 프로그램</b>												
사회보장	1,212	1,346	1,459	1,553	1,646	1,742	1,842	..	2,152	2,261	2,371	19,014
메디케어	747	821	842	958	1,028	1,104	1,252	..	1,451	1,564	1,770	12,525
메디케이드	592	608	558	582	620	656	699	..	848	904	967	7,366
기타 법정지출 프로그램	1,581	1,200	1,335	1,251	1,196	1,222	1,286	..	1,391	1,440	1,518	13,302
<b>소계</b> (GDP 대비 %)	<b>4,133</b> <b>(16.5)</b>	<b>3,975</b> <b>(15.1)</b>	<b>4,194</b> <b>(15.4)</b>	<b>4,343</b> <b>(15.3)</b>	<b>4,490</b> <b>(15.1)</b>	<b>4,724</b> <b>(15.3)</b>	<b>5,078</b> <b>(15.8)</b>	..	<b>5,843</b> <b>(16.0)</b>	<b>6,169</b> <b>(16.2)</b>	<b>6,626</b> <b>(16.7)</b>	<b>52,207</b> <b>(15.7)</b>
<b>순이자</b> (GDP 대비 %)	476 (1.9)	661 (2.5)	789 (2.9)	833 (2.9)	867 (2.9)	910 (2.9)	960 (3.0)	..	1,171 (3.2)	1,250 (3.3)	1,321 (3.3)	10,217 (3.1)
<b>총 재정지출</b>	<b>6,273</b>	<b>6,372</b>	<b>6,883</b>	<b>7,091</b>	<b>7,294</b>	<b>7,589</b>	<b>8,003</b>	..	<b>9,040</b>	<b>9,472</b>	<b>10,026</b>	<b>82,242</b>
<b>GDP 대비 %</b>	<b>25.1</b>	<b>24.2</b>	<b>25.3</b>	<b>24.9</b>	<b>24.6</b>	<b>24.6</b>	<b>24.9</b>	..	<b>24.8</b>	<b>24.9</b>	<b>25.2</b>	<b>24.8</b>

출처: OMB, "Fiscal Year 2024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23.3.9., Table S-4 & S-5

□ 주요 부처(기관)별 2024회계연도 재량지출 사업 예산안 규모는 다음과 같음

- **(국방부)** 국방부의 재량지출 예산권한(Budget Authority)은 전년도(2023회계연도) 확정예산 대비 3.2%(260억달러) 증가한 8,420억달러 편성
  -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및 폭력 극단주의 단체 등의 위협 대응
  - 미국 및 미국 동맹국들의 안보를 위해 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핵 억지력 현대화(modernization) 유지
  -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자 및 집단 대응을 위한 사이버 안보 프로그램 지속 가동
  - 무인 항공기 등의 개발 및 조달을 통해 향후 위협에 대응하고, 운영비용 감축
  - 현역군인 및 군무원 봉급 5.2% 인상, 생계수당(subsistence)과 거주 수당 인상
- **(보건·복지부<sup>18)</sup>)** 보건·복지부의 재량지출 예산권한은 전년도(2023회계연도) 확정 예산 대비 11.5%(148억달러) 증가한 1,444억달러<sup>19)</sup> 편성
  - 미래 대유행 및 생물학적 위협에 대응한 공중보건 체계 강화를 위해 200억달러의 무지출 예산 편성
    -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주·지방에 대한 공중 보건 역량 강화(주 및 지역별 공중 보건 인프라 확대, 보건 인력 강화)를 위해 105억달러 예산(재량지출) 배정
  - 약 400만명에 달하는 4세 아동(3세 아동까지도 확대 가능)을 대상으로 양질의 유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주정부에 예산을 지원하며, 관련 예산으로 향후 10년동안 6,000억달러 소요 전망
  - 정신건강 위기\*(behavioral health crisis) 대응하고자 민간 의료 보험과 메디케어(공적 의료 보험)에 관련 지원 항목 범위 확대 등 정신 건강 보건 체계 지원
    - \* 예산안 설명 자료에 따르면, 18~25세 3명 중 1명은 과거 정신질환(mental illness)을 겪었으며, 4,600만명 이상이 물질사용장애(SUD<sup>20)</sup>)를 경험했고, 이중 94%는 치료를 받지 못함
  - C형 간염,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HIV/AIDS) 등 전염성 있는 질병의 예방 치료 관련 예산 지원

18)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19) 보건·복지부의 예산안 규모는 인디안 보건 서비스(재량지출에서 의무지출로 전환 추진 중) 규모를 제외함

20) SUD: Substance Use Disorder

- HIV 신규 발생 건수 감축 및 노출 전 예방요법(PrEP; Pre-Exposure Prophylaxis) 접근성을 높이고자 관련 예산에 8억 5천만달러 편성
- 모성 보건 및 의료형평성 개선을 위해 4억 7,100만달러 지원
  - \* 예산안 설명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산모사망률이 가장 높고, 흑인, 인디언 알래스카 원주민 그룹에서 불균형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
- **(주택도시개발부)** 주택도시개발부의 재량지출 예산권한은 전년도(2023회계연도) 확정예산 대비 1.6%(11억달러) 증가한 733억달러 편성
  - 327억달러 규모의 예산을 통해 주거선택 바우처(HCV) 프로그램<sup>21)</sup>을 확대하여 기존 지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 가구 지속 지원 및 5만 가구 추가 지원<sup>22)</sup>
  - 극빈(ELI<sup>23)</sup>) 퇴역군인 및 나이 도달로 인해 위탁보호(foster care) 체계에서 나와야 하는 청소년을 위한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90억달러 예산 지원
  - 전국적으로 심각하게 부족한 적정가격 주택 대응을 위해 주택투자협력 프로그램(HOME<sup>24)</sup>)에 3억달러 편성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약한(under-served) 채무자, 저소득 및 적정소득자 (low to moderate income) 및 소수민족 주택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연간 저당 보험료(mortgage insurance premiums)가 1/3 정도 감축될 수 있도록 지원
  - 노숙자(가정폭력, 노숙 청소년 포함) 근절을 위해 37억달러의 노숙자 지원 보조금 예산 지원
  - 건강상 유해하거나 납을 기본 성분(lead-based paint)하는 어린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주택의 주요 유해 물질 감축을 위해 4억 1,000만달러 편성
- **(국무부 등<sup>25)</sup>)** 국무부의 재량지출 예산권한은 전년도(2023회계연도) 예산 대비

21)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22) 예산안 자료는 HCV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수혜자들은 약 230만명으로 언급하고 있음

23) ELI: Extremely-Low Income

24) HOME: HOME Investment Partnership Program: 1990년 저렴주택법 제정 이후 새로운 형태의 지역개발을 위해 연방정부가 직접 후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각 지역별로 양질의 안전하고 저렴하며 위생적인 저렴주택의 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저렴주택 공급 전략을 구현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연방의 재정 및 기술지원을 제공(출처: 김정화, 이현석, 『사회적 지속가능성 실현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연구: 미국 하와이주 저렴주택 사례를 중심으로』, 주택금융연구원, 2021.12.13.

25) 국무부, 국제개발처(USAID;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기타 해외 프로그램

11.2%(71억달러) 증가한 705억달러 편성

- 글로벌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녹색기후기금(GCF<sup>26</sup>)에 16억달러, 청정기술 기금(CTF<sup>27</sup>)에 12억달러 배정
- 미국의 글로벌 보건 리더십 강화를 위해 109억달러 배정하여 전염병의 예방, 탐지, 대응 등을 지원하고 보건 안보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타 국가와의 양자 협력 확대
-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 및 협력국과의 동맹 심화를 목표로 동남아시아국가 연합(ASEAN<sup>28</sup>) 지원 예산으로 9,000만달러, 인도-태평양 경제 체계(IPEF<sup>29</sup>)에 5,000만달러 지원
- 중앙 아메리카 및 아이티(Haiti) 안보 및 번영 구축 예산으로 향후 4년 동안 40억달러 배정
- 우크라이나를 포함하여 자연재해 또는 갈등(conflict)을 겪고 있는 국가들을 위해 최대 125,000명까지 허용이 가능한 난민 허용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105억 달러 배정
- 아프리카와의 관계 돈독을 위해 사하라사막 이남(sub-Saharan) 아프리카 지역의 신규 경제협약 촉진 및 민주주의와 인권 개선 지원

---

26) GCF: Green Climate Fund

27) CTF: Clean Technology Fund

28)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29) 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표 7> 기관별 (재량)지출 예산권한 내역

(단위: 십억달러, %)

부처 및 기관 \ 회계연도	2022 <sup>1)</sup>	2023	2024	증가율
	(실적)	(확정예산)	(요구액)	('24-'23)/'23
<b>내각 부처 (Cabinet Departments)</b>				
농무부 (Agriculture)	26.3	26.4	30.1	14.3
상무부 (Commerce)	9.9	11.2	12.3	10.7
국방부 (Defense)	742.6	816.0	842.0	3.2
교육부 (Education)	75.3	79.2	90.0	13.6
에너지부 (Energy)	44.3	47.8	52.0	8.7
보건복지부 (Health & Human Services)	119.9	129.1	144.0	11.5
국토안보부 (Homeland Security)	57.6	61.0	60.4	-1.0
주택·도시개발부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65.7	72.1	73.3	-
내무부 (Interior)	16.0	17.2	18.8	9.3
법무부 (Justice, DOJ)	35.2	37.5	39.7	5.9
노동부 (Labor)	13.1	13.6	15.1	10.9
국무부 (State and Other International Programs)	57.8	63.4	70.5	11.2
교통부 (Transportation)	26.9	28.7	27.8	-2.9
재무부 (Treasury)	14.3	14.2	16.3	15.0
보훈부 (Veterans Affairs)	112.4	134.9	137.9	2.2
<b>주요 정부기관 (Major Agencies)</b>				
공병단(Corps of Engineers)	8.3	8.7	7.4	-14.4
환경보호청	9.6	10.1	12.1	19.2
조달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0.5	-0.1	1.0	N/A
항공우주국(NASA)	24.0	25.4	27.2	7.1
국립과학재단	8.8	9.5	11.3	18.6
중소기업청	0.5	1.1	1.0	-8.2
사회보장국	9.1	9.6	10.5	9.7
기타 기관들	25.4	27.3	29.4	7.7
의무지출 변화 (Changes in Mandatory Programs offsets)	-16.1 <sup>2)</sup>	-18.6	-30.6	64.8
<b>합계 (Base Discretionary Budget Authority)</b>	<b>1,476.6</b>	<b>1,618.3</b>	<b>1,695.5</b>	<b>4.8</b>
국방 vs 비국방	(Defense Total) (Non-Defense total) (Veterans Affairs Medical Care Program) <sup>4)</sup>	- - (118.7)	(858.3) (641.2) (121.0)	(886.4) (688.1) (1.9)
안보 vs 비안보	(Defense Total) (Non-Defense total) (Veterans Affairs Medical Care Program)	- - (118.7)	(979.2) (520.3) (121.0)	(1,014.4) (560.1) (1.9)

출처: OMB, "Fiscal Year 2024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23.3.9., Table S-8

#### 4. 주요 재정정책

##### - 예산안 주요 정책 -

- ①가계비용 절감(Lowering costs and Giving Families More Breathing Room)
- ②메디케어/사회보장제도 보호(protecting) 및 강화(strengthening)
- ③저소득층은 끌어올리고, 중산층은 키우는(bottom up and middle out) 경제
- ④기후변화 대응
- ⑤국제위협 대응 및 미국 안전
- ⑥재정건전화 등

#### 가. 가계 비용 절감

- (자녀가 있는 가구의 세금 감면) 미국 구조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 2021년 3월 11일 입법)에서 한시적으로 확대되었던 아동수당(CTC<sup>30)</sup>) 확대
  - 아동 1명당 6세 이상은 최대 3,000달러, 6세 미만은 최대 3,600달러로 확대
- (적정가격 및 양질의 보건 서비스 확대) 향후 10년간 1,500억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메디케이드를 통한 자택 및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보건 서비스 개선
  - 개인 전담 보건 서비스 등을 활용한 장애가 있는 노년층의 보건 관리 및 개인 보건 서비스 직종 자체에 대한 질적 개선 병행
  - 저소득·농업 지역의 보건 인력 확대 및 개선을 위해 내년도 공중보건공단(National Health Service Corps) 예산에 9억 6,600만달러 배정
- (적정가격 주택 공급 확대) 적정가격 주택 부족 대응을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 하며 관련 세액 공제를 포함하는 등 590억달러(의무지출) 배정
  - 이와 함께, 적정가격 주택 개발을 가로 막는 진입 장벽을 개선하는 주 및 지방 정부를 대상으로 10억달러를 배정하여 인센티브 제공
- (고등교육 지원) 저소득층 연방 대학 장학금 프로그램(Pell Grant)의 수혜 최대 금액을

30) Child Tax Credit

500달러 인상

- 또한, 가구 소득 125,000달러 이하를 대상으로 흑인대학(HBCUs<sup>31</sup>), 부족대학(TCCU<sup>32</sup>), 소수민족·유색인종 대학(MIS<sup>33</sup>)을 다니는 경우 학비 보조금 지원
- (에너지 및 수도 비용 보조) 2023년 말에 만료되는 저소득가구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LIHEAP<sup>34</sup>) 확대<sup>35</sup>
- 에너지 비용을 각 주정부의 선택에 따라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 비용 지원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나. 메디케어 및 사회보장제도 보호 및 강화

- (수혜금 지불 능력 강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수입 개선 방안 마련 계획 등
- (메디케어) 연방건강보험기금(Medicare HI trust fund)에 대한 고소득층의 기여도를 높이고 메디케어 제도(medicare drug) 개혁을 통해 창출되는 수입을 기금에 적립하는 등 기금 수입 강화 계획
- (사회보장) 의회와 함께 사회보장 수입 개선을 위한 고소득층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보장국의 인력 및 정보기술에 대한 예산 투자를 바탕으로 고객 서비스 개선

#### 다. 저소득층은 끌어올리고, 중산층은 키우는 경제

- (미국 제조업 투자)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sup>36</sup>)에 3억 7,500만달러를 배정

31) HBCU: Historically Black Colleges and Universities(미국 내 흑인 지역사회의 교육을 위해 설립된 대학을 통칭)

32) TCCU: Tribally-Controlled College or University(인디언 부족의 관리를 받고 있는 고등 교육기관으로 중서부 남서부 지역에 주로 위치)(25 USC, Ch.20, Sec. 1801)

33) MIS: Minority-Serving Institution(유색인종, 저소득층을 위한 대학 교육기관)

34) LIHEAP: 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 LIHEAP는 저소득 가구의 난방 및 냉방 비용을 지원에 더해 에너지 위기, 내후성 강화(단열재 보강 등), 에너지 관련 집수리 비용 등을 지원

35) 2023회계연도 통합세출예산법(P.L. 117-328)에서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LIHEAP에 50억달러 예산 배정

36) NIST: National Institutes of Standards and Technology

하여 제조 관련 연구를 지원함과 동시에 신규 연구 기관 발족 계획

- 또한, 중소 제조기업의 생산성 및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자문 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공공-민간 파트너십<sup>37)</sup>(MEP<sup>38)</sup>)에 2억 7,700만달러 배정
- (근로자 유급 의료휴가 및 가족휴가 지원) 자격을 갖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12주 기간의 가족 및 유급 병가 도입
  - 병간호가 필요한 가족 구성원, 가정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등을 고려한 돌봄을 지원하고, 기업이 모든 근로자에게 매년 7일간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 제도 도입
- (빈곤 학교 지원) 저소득 지역사회의 학생들이 학문적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205억달러 규모의 예산 지원
  - 동 예산을 통해 부촌과 빈곤 학교의 고질적인 자금의 불균형 문제 접근 계획

## 라. 기후변화 대응

- (에너지 비용 감축 및 청정에너지 인프라 일자리 창출) 450억달러의 예산을 배정하여 청정에너지 분야 관련한 농업 지역의 일자리도 함께 창출
  - 전국적인 청정에너지 분야 인력 개발 및 지속가능한 인프라 프로젝트 계획(저소득 가구 주거지의 단열재 보강 등)
  - 부족 단위의 가정에게 전기 공급 및 부족 관리 하에 있는 고등 교육기관(TCCU)에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지원을 위해 8,300만달러 예산 배정
- (지구 온난화 감축)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52% 감축 목표 제시<sup>39)</sup>

3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미국, 제조업 25년의 성과」, 이슈분석 21호, 2014.1.  
[https://now.k2base.re.kr/portal/issue/ovseaIssued/view.do?poliIssueId=ISUE\\_0000000000000678&menuNo=200&pageIndex=16](https://now.k2base.re.kr/portal/issue/ovseaIssued/view.do?poliIssueId=ISUE_0000000000000678&menuNo=200&pageIndex=16), 검색일자: 2023.3.21.

38) MEP: 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

39) 바이든 정부는 전년도에 발표된 2023회계연도 예산안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2030년까지 2005년 수치

- 환경보호국(EPA)에 6,440만달러를 배정하여 강력한 온실 효과 기체인 수소불화탄소(HFC)의 단계적 중단 작업을 지속 지원하고, 에너지부(DOE)에 12억달러를 배정하여 탈탄소화 작업 등 진행
- (기후변화 복원력(resilience) 강화) 내무성(DOI), 농무부(USDA), 국토안보부(DHS), 국방부에 대해 기후변화 복원력 관련 230억달러 규모의 예산 배정
  - 지역사회 홍수, 산불 대응 등을 지원함으로써 보존, 생태계 관리 및 재난재해 대응 능력 등 강화
    - 미래 홍수 상태에 대한 데이터 개발 등이 포함된 홍수 위험 지도 예산에 5억 달러 편성

#### 마. 국제위협 대응 및 미국 안전

- (국내 범죄 예방) 총기 폭력 및 기타 강력 범죄 대응을 위한 연방 법 집행 대응력 강화 예산으로 178억달러 배정
  - 경찰 인력 10만명 추가 영입 및 지역사회 범죄 예방·지역사회 폭력(community violence) 저지 개입 예산으로 향후 10년간 50억달러 편성 등
- (젠더 폭력 종식) 1994년에 입법된 여성폭력방지법(VAWA<sup>40</sup>)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한 10억달러(역대 최고 규모) 예산 편성
  - 동 예산은 3,500만달러 규모의 빈민가 및 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문화적 특정(culturally-specific) 서비스 예산 및 VAWA 관련한 사이버 범죄 대응 예산으로 1,400만달러 포함
- (우크라이나, 유럽 동맹국 등 지원)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회원국들과 함께 지속적인 우크라이나 지원

의 50~52%)를 이번 예산안과 같은 수치로 언급한 바 있음

40) Violence Against Women Act of 1994: 1994년에 제정된 미국 연방법으로 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범죄가 발생한 경우 자동적으로 그리고 의무적으로 배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불기소 시에도 민사배상을 허용하고 있는 등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들의 법적 평등과 서비스를 강화함 (출처: 법제처 홈페이지(세계법제정보센터·법령정보관리원), “미국 여성폭력방지법 1994”)

- 러시아의 침공(aggression)에 맞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 및 협력국의 대비 능력 강화 지원
- (중국 대응 및 인도-태평양 지역 억지(deterrence) 전략) 미국의 유일한 경제·외교·군사·기술적 경쟁자인 중국에 대한 도전 과제 대응
  - 20억달러 규모의 예산으로 국제적인 물적 기반시설 자금을 확보하고, 20억달러의 추가적인 자금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 지원 강화를 바탕으로 위협 세력 대응 강화<sup>41)</sup>
- (국경 및 이민 체계 안전 강화 등) 국경 안보를 강화하고 합법적인 이주민 경로 (lawful pathways for migration) 지원을 위해 관세국경보호청(CBP<sup>42)</sup>)과 이민세관집행국(ICE<sup>43)</sup>)에 250억달러 배정
  - 동 예산은 국경수비대 인력 350명 증원을 포함하여 국경 및 입항지(ports of entry)의 기술 예산으로 5억 3,500만달러, 마약성 진통제(fentanyl)의 밀거래 대응 예산으로 4,000만달러 등 배정

## 바. 재정 건전화

◇ 향후 10년 동안 대형 법인과 고소득층의 세금 기여도를 높이고 대형 법인(제약 회사, 오일 컴퍼니 등)에 대한 불필요한 지출을 감축하는 방식을 통해 약 3조달러의 재정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득 40만달러 미만의 가구에는 추가적인 세제 부담이 없도록 할 계획

- (고소득층 최저세율 도입) 상위 0.01%의 고소득층(billionaires)을 대상으로 미실현 수익(unrealized income)에 대한 25%의 최저한세율 적용<sup>44)</sup>
  -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현 조세 체계 하에서는 고소득층의 경우 증산층보다

41) 미 국방부의 2024 태평양 지역 억지력 이니셔티브에서도 약 91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 동맹국 및 협력국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능력 강화 언급

42)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43)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44) CRFB, "Analysis of the President's FY2024 Budget, 2023.3.9.

<https://www.crfb.org/papers/analysis-presidents-fy-2024-budget>, 검색일자: 2023.3.27.

더 적은 세율이 적용되기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을 언급

□ (법인세율 인상) 법인세율 21% → 28%로 인상

- 정부는 2017년 세제개혁(세제개혁 전 법인세율: 35%)으로 인해 평균 법인세 실효 세율이 10% 이하 수준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기업의 이윤 상승이 경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강조

□ (자사주 매입 세금 확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부과되었던 자사주 매입 (buy-backs) 세율 4배(현재: 1% → 안: 4%) 인상

- 정부는 동 제도를 통해 자사주 매입을 통한 기업의 세율 혜택을 방지하고, 생산성 증대 방향으로 기업의 투자 기대

□ (고소득층을 위한 소득세 정책 전환) 2017년 세법개혁에서 인하(39.6% → 37%)된 최상위 소득세율 구간을 세법개혁 전 세율(39.6%)로 복귀<sup>45)</sup>

- 추가적으로, 소득 1만달러 이상을 대상으로 자본소득세(capital gains)에 대한 세율을 근로소득세율과 같은 세율로 적용 계획

---

45) 최상위 소득 구간의 수입 기준은 개인 40만달러, 부부합산 45만달러